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한 전 체 위 크 샷

- ◆ 일시 : 2004. 10. 27 (수) 오후 14:00-17:00
-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NGO센터
- ◆ 주최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 후원 : 행정자치부 2004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110-736) 서울시 중구 영등포동 136-48 기동교회관 811호
전화 : 3675-9935 / 팩스 : 3675-9934
E-Mail : kdawu@hanmail.net / http://kdawu.org

■ 프로그램 순서

- ◇ 사 회 : 오명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 경과보고 : 신희원(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 주제발표 : “여성장애인과 가정폭력”(20분)
 - 장명숙(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 사례발표(각15분씩)
 - 이승희(부산여성장애인연대 회원)
 - 김진숙(충북여성장애인연대 회원)
- ◇ 휴식(10분)
- ◇ 토론(각10분씩)
 - 배복주(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
 - 조임숙(시각장애인여성회 부회장)
 - 이문자(서울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방영희(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센터 원장)
- ◇ 종합토론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한 전체 워크샵
-주제발표 자료

여성장애인과 가정폭력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I. 들어가는 이야기

이 글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그동안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 성폭력보호시설의 관련인 등이 모여 1회의 상담위원회와 4회의 매뉴얼 개발회의를 통하여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각 지부의 '여성장애인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한 지역워크샵'을 마치고 정리된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그러한 애씀의 바탕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대구지부에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가 있을 뿐 전국에 여성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가 단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예방매뉴얼 자료를 만들기 위한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현실을 외면하는 이 사회에 맞서 먼저 외치고자 하는 우리 여성장애인들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는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장애 유형 및 장애인 출현율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여성장애인 인권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후 여성장애인가정폭력의 현황을 들여다보며 특히 유형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볼 것입니다.

여성장애인가정폭력예방매뉴얼 작업을 위한 단계로 그동안 준비된 자료들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더욱 나누며 가겠습니다.

함께 가는 많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II. 장애유형 및 장애인 출현율

1. 우리 나라의 장애인 어떤 유형이 있나?

〈 표 1〉 장애유형별 분류 → *가시장애* *정신장애* *가시장애* *가시장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6)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6)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6)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6)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4)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3)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3)	정신분열병,분열형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3)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2. 우리 나라의 장애인은 어느 나이 대에 가장 많이 나타날까?

〈표 2〉 성별·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단위: 1/100건)

연령별	성별	계		남		여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수	출현율
0~ 9세		41,852	0.60	25,541	0.70	16,311	0.50
10~19세		62,819	0.89	42,630	1.16	20,189	0.59
20~29세		96,228	1.37	67,506	2.10	28,722	0.76
30~39세		193,100	2.26	128,460	3.02	64,640	1.51
40~49세		242,577	3.39	168,466	4.59	74,111	2.13
50~59세		238,458	5.25	159,352	7.02	79,106	3.48
60~69세		284,108	8.46	168,382	11.15	115,726	6.26
70~79세		198,339	11.61	99,543	15.96	98,796	9.11
80세+		92,013	15.50	30,550	17.9	61,463	14.5
계		1,449,494	3.09	890,430	3.86	559,064	2.34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으로는 각 나라마다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장애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표 2>에서 나타나듯이 5년마다 실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449,496명으로 추정될 뿐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를 생각할 때 참 많은 장애인이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장애인 정책 면서 대책

먼저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장애가 있었고, 신규 장애유형으로 발달·정신·심장·심장장애가 그리고 뇌병변장애가 신규 분리확대 유형으로 자리하며 전체적으로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2003년 7월부터 더욱 확대되어 호흡기·간·안면변형·장루,요루·간질장애 등의 영역이 추가되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유형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는 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 1,449,5천명 중 여성장애인은 55만 9천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애주기별로 장애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에 비해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의 비중은 낮고, 노년기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여성장애인 인권의 현황

1. 여성장애인과 교육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남성장애인 및 일반인과 비교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다른 인구 대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계급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8%인데 비해 일반 여성은 35.0%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일반 여성에 비해 약 18% 포인트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교 이상에 있어서는 4.2%로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장애인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하더라도 두드러진 저학력으로 여성장애인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들은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받을 기회가 제약되어 있으며 특히 학령기에 인성발달 및 취업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표 2〉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비교

(단위: %)

구 분	장애인		일반인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초등이하	67.8	41.4	35.0	17.8
중 학교	11.1	16.1	17.1	14.2
고등학교	15.3	29.5	34.8	41.4
대학이상	4.2	11.2	13.1	26.6
비 해 당	1.6	1.7	-	-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 취업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2000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비장애 15세 이상 인구의 60.7%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48.3%에 이르고 있는 것에 반해 여성장애인은 19.5%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인구의 평균참가율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재가장애인은 전체적으로 34.2%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남성장애인의 43.5%가 취업하고 있는 반면, 여성장애인은 불과 19.5%만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 여성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자영업 종사자로서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무급가족종사자로서 30.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임시직이나 일용근로자가 2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용근로자나 자영업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원)

구분	재가장애인			전국민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참가율	43.5	19.5	34.3	74.0	48.3	60.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

통계청,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을 보면, 남성장애인이 평균 86.8만원의 수입을 얻는데 비해 여성장애인의 경우 평균 45.8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어 남성 장애인의 52.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4-1〉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

(단위: 만원)

구분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19~44세	101.7	59.1
45~64세	86.7	45.4
65세 이상	44.7	25.9
계	86.8	45.8

계란 정도.

3. 결혼

→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비장애
기혼상태로 → 기본 급여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 가정생활
→ 대안 마련 필요

여성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결혼과 가정의 유지는 매우 어려운 현실로 다가온다. 이는 우리 사회 처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전통이나 가문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결혼생활에 많은 강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여성장애인에게 자신감이 없거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서 부딪힐 수많은 현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가사를 이끌어 가는데 몸에 맞는 시설이 대부분 무시된 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부담감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계가 여성장애인의 결혼 상태는 45%가 기혼상태로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40.6%는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장애인의 72.2%가 기혼상태인 것과 비교해도 비장애여성의 60%가 기혼상태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44.2%로 결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혼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이혼율은 4.9%로 남성장애인의 4.2%나 비장애 여성의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혼의 비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 장애인의 결혼과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임신, 출산의 경우나 육아 등 기타 필요한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적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 결혼상태

구분	재가장애인			전국민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8.8	10.3	15.5	35.1	25.1	30.1
유배우	72.2	44.2	61.5	61.3	60.0	60.6
사별	4.8	40.6	18.6	1.8	12.8	7.4
이혼	4.2	4.9	4.5	1.8	2.1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남장애 여성 가정폭력 20%

IV.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현황

1. 일반적 가족의 특성과 가족구성원, 가정폭력

1) 일반적 가족의 특성

가족의 집단적 특성으로서는, 최초의 공동사회 집단이며, 폐쇄적 집단이고,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비형식적인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 특질로는 성(姓)과 혈연의 공동체, 거주 공동체, 애정의 결합체, 운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은 한 개인이 삶을 최초로 경험하는 곳으로 그가 소속된 어느 집단이나 제도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다. 또한 가족은 외부사회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영역을 갖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는 좀처럼 개입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2) 가족구성원

- 배우자(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포함)
-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일반적인 가정폭력

가족구성원중의 한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언어적, 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1) 언어적 폭력

신체적인 학대 없이도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체적 폭력

칼과 같은 흉기로 위협하거나 발로 차는 행위, 물건을 들어 던지는 행위, 감금시키거나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피해자 스스로를 존재조차 희미하게 하는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다.

(3) 성적 폭력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거나 도구를 사용한 강제적인 성폭력,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 등을 성적행동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제적 폭력

모든 경제권에 권한이 없으며 일도 못하게 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이에 속한다.

(5) 정신적 폭력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이다. 자존심(자아존중감)이 수없이 짓밟히는 경험을 하며 이러한 폭력을 통하여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한다.

4)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유형

(1) 배우자 학대

배우자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2)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함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과 방임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자녀 또는 연령이 낮은 가족구성원이 부모 또는 연령이 높은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 고립, 언어적 학대, 과도한 약물사용 묵인, 노인의 돈을 오용 혹

은 착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가정 폭력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폭력은 부부폭력, 부모의 자녀폭력, 형제폭력 또는 자녀의 부모폭력 등 다양한 하위유형이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권론적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산물로 인식하면서 남편일방적인 배우자 폭력과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 집중되어 있다.

2. 예방매뉴얼 제작 과정으로 본 여성장애인과 가족

1) 여성장애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이 있는 곳,

9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우리 가족이라고 소개되어야 한다.

8 -가정에서만은 적어도 장애의 불편함 외에는 모든 가족들로부터 동등하게 가정의 대소사에 동참해야 한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곳

-지지받을 수 있고 서로 기대고 설 수 있는 관계

-상처받고 신음 할 때 품어주고 다듬어 주는 관계

7 -마음을 알아주고 아픔을 위로해 주는 곳

-끌어안고 감싸주는 영원한 사람들이어야

6 -형제자매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게 해 주는 곳

2) 여성장애인이 생각하는 현실속의 가정

-결혼은 여성장애인에겐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돌보고 책임져야할 대상이 되어 부담을 갖게 한다.(짐스러워한다)

-모든 가족 행사에 번번히 소외되어 자존감을 느낄 수 없다.

(손님이 오면 소개 안시킴, 동생이나 언니의 결혼식에 가지 못하게 함)

-시설에 들어가길 은근히 강요한다.

-가족으로부터 따돌림과 무시를 당한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면 편한 곳 ✓

(과잉보호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지나친 걱정으로 못하게 한다)

-가족 속에 여성장애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얽혀사는 기분으로 산다.(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며 불편함이 많아 가족에게 한없이 미안하다)

-가족의 구타와 욕설 구박으로 지옥을 방불케 한다.

-아버지가 무섭다(강조). 모친이나 형제자매도 포함.

-언니나 동생에 대한 투자는 아깝지 않고 여성장애인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는 아깝다고 한다.

3. 예방매뉴얼 제작 과정으로 본 여성장애인과 가정폭력

1)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가정폭력의 유형(*권력)

위의 '〈표 1〉 장애유형별 분류'에서 보았듯 단순히 장애인이란 말보다는 장애 유형별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상이며 그에 따른 다른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뒤따른다.

특히 여성장애인 경우 양육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로 나타나는 가정폭력의 형태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언어 및 정서적 폭력은 물론이고, 신체적,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며,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가 여성장애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반영되고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폭력의 정도와 유형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과잉보호나 과도한 차별로 당사자에게 어린 시절부터 길들여지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 무기력한 상태로 그러려니 안고가야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한다.

중도장애의 경우 본인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치열한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시설로 보내지거나 이혼이 제기되며 가족들의 차별과 무시가 먼저 나타나 지난한 아픔의 과정을 보낸다고 볼 수 있다.

(1) 지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지체 장애로 인하여 성장하면서 수시로 전해지는 가족들의 무시와 언어폭력,

-결혼하지 않을 경우 짐이 된다는 은근한 정신적 폭력,

-결혼생활에서의 배우자와의 관계와 아이들 성장에서 남편으로 가져올 수 있는 관계에서의 폭력

(2) 뇌병변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 장애수당 및 수급권 수당 가족들에 박탈
- 교육으로의 접근권이 가족으로부터 차단
- 결혼에의 접근권이 가족으로부터 차단
- 가족의 차디찬 냉대

(3) 중도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 사고 위로금이 없어지면 가족이 외면함.
- 가족들의 갑작스런 돌변 무시와 언어폭력
- 이혼의 위기
- 시설로 보내길 기대

(4) 시각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엄마와 아이를 떨어트려서 살게 한다.
- 안마를 하여 돈을 벌어오라고만 하며 자신에 번 돈에 대한 경제권을 주지 않는다.
- 가족의 대소사에서 제외된다. ~~()~~

(5) 청각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 가족들이 수화를 하지 못해 철저히 소외된다.
- 가족들이 대부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히 무시한다.

(6)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 구타가 심하게 나타난다. ~~()~~

(7) 그 외 장애유형을 가진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V. 여성장애인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대안)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삶이 가정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정은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으로 가정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가족의 어느 위치보다도 약자의 위치라는 데 더욱 기인한다. 모든 폭력에는 힘의 권력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가족 간에 힘의 우열이 생길 경우,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시작되면 그 후 집에 있는 동안 아주 오랜 기간 가족 안에서 폭력의 대상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가족이 지켜주지 못하는 자리를 사회가 지켜주겠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사회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이다.

- 여성장애인 자조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이야기 나누기, 힘 나누기, 동지애)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방 교육이 필요하다.
-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여성장애인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 전문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및 가정폭력전문가가 필요하다.
-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제와 지역사회 서비스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확보 되어야 한다.
-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의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양YWCA. 「폭력예방 길라잡이」, 2003.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4기 여성장애인 상담학교 교육 자료집」, 2004.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가정폭력 예방메뉴얼 제작을 위한 지역워크숍 및 제4회 개발회의 자료', 2004.

여성장애인연합회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한 전체 워크숍
-사례발표 자료 1

이 승 희(부산여성장애인연대 회원)

원래 고생이 생애야 개성도 없고

■ 태어남 · 자라남

1961년 폭염이 썩는 한더위에 강원도 홍천이라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다. 9남매의 장녀로 태어나 오빠들의 영향을 받아 숙녀답지 않은 행동을 하여 개구쟁이로, 말쑥꾸러기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 형제들이 많아 서로 챙겨주고 우애 있게 살았으며, 시골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자연을 벗 삼아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만석 군 이셨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넘치는 생활을 하셨다.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 곱게만 자랐던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땅과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군인으로서 군 복무만 하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파산을 하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생활을 하였다.

■ 결혼 · 시댁과의 갈등 · 폭력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모가 운영하는 슈퍼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몇 년을 지내왔다. 공장에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였고, 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다.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인지 성과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부모님들이 성교육이나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고 자상했던 남편에게 쉽게 정을 느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던 나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였으며, 부모님이 한번 결혼하면 그 사람과 평생 살아야하고 그 집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줄로 알았다. 그때부터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고생이 시작되었다.

남편과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다. 남편이 처음에는 택시운전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갔으나 벌어오는 돈을 시어머니가 받아서 주시지 않았으며, 내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도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서, 잘못을 한다면서 남편에게 일일이 말씀을 하셨으며, 나의 말이나 의사는 간곳이 없고 시어머니 말씀만 듣고 구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의 매 맞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남편이 의치증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수도, 웃을 수 있는데 말을 한다고, 웃는다고 때렸으며, 그러한 것으로 트집을 잡아 직장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나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으며, 나날이 지치고 힘들었다.

남편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노름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가 절에서 보살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나누어 주는 음식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거지같은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을 살다보니 나 스스로 지쳐만 갔다.

IMF가 시작되면서 어머니의 일도 IMF 왔다. 그러자 어머니의 마음이 돌변하여 우리를 밖으로 내치자 부산으로 내려왔다. 부산에서 살아가기 위해 남편은 동생이 하는 설비를 하였

내가 맞으면 남편은 낫는다.
나 동생이

고 나는 철공소에 취직을 하였다. 시어머니는 일해 주는 사람이 없고 힘이 드시니까 우리더러 밥을 굶기지 않을 테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셨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힘이 들었던 나는 시어머니와 살기 싫다며,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니 남편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온갖 수단을 부렸으나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니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깨고 부수었고, 구타를 했다. 그렇게 많이 맞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서울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서울로 가는 것조차 싫어 퇴원을 하여 부산에서 계속 살았다.

산재보험에서 35만원을 보상받아 전세를 얻어 생활을 시작하였다. 만 2년 만에 사고가 난 회사와 합의하여 6천만원을 받았으나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다 써버렸다. 돈이 떨어지자 잠잠하던 구타가 다시 시작되었다.

남편은 생계 때문에 생선공장에서 일을 하여 80만원을 받았으나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직장을 옮겨 다녔으며, 힘이 든다면서 일은 하지 않고 매일같이 돈을 가져가서 다른 여자들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다.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친구들과 있다고 하나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 길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구타를 하여 쓰러진 적도 있었다.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아저씨가 신고를 하여 파출소에 가면 거기서도 때리곤 하였다. 그러자 파출소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헤어지라고 하였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인지라 헤어질 수가 없었다.

남편은 남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드라이브를 하면서 돌아다녔으며, 시어머니님이 오셨는데도 전화한다고 나가서 여자들을 만나곤 하였다. 은행에 불일이 있어 가다가 다른 여자와 있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잘못 본 것이라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구타를 일삼았다.

때리고 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잠자리를 요구하고 그러한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남편은 일을 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오면 150만원을 쓰는 사람이었다. 항상 돈이 모자라 카드로 빚을 내어 생활비로 쓸 정도였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 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몸과 마음이 상하여 스트레스가 쌓였으며, 이로 인해 자궁암에 걸리고 말았다. 수술 후 삼 일 만에 병원에 와서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발로 차고 때렸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하열을 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으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하다.

몸이 불편하게 많았을 때는 쉬어가지고 싶고 앉는 마음
강아지 잃고 내비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자살
위험
아이들은 걱정스러워...

다치고 내비는 남편이. 스스로 나가라는 식으로 야비하게
이혼 후 아무런 도움 주지 않기에 하는 방책으로.

남편이
· 머리도 못 깎아주게
· 화장도 내지 못하게

파출소
아이한테 하는게 행복.

개성 있게 대미 해줘 감사.

휴게시간 2년 후.

인위. 생계 위기
개성의 양자는 남편의 생계위기를 걱정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한 전체 워크숍
-사례발표 자료 2

김진숙(충북여성장애인연대 회원)

30. 자해경매인 (채병남). 강권,
어렸을 때는 썩어 못됐다.

학교 가는 것 안쳐 가.

중학교 졸업 없음.
→ 2년 내국음료사업
→ 2년 내국음료사업 (동아방송)
→ 강박관념 제거
→ 강박관념 제거
→ 강박관념 제거

→ 2년 내국음료사업 (동아방송)
→ 강박관념 제거
→ 강박관념 제거
→ 강박관념 제거

아바-가영마 주라

영아 양육 개상

지원금만 4000원 받음

→ 2년 내국음료사업 (동아방송)
→ 강박관념 제거
→ 강박관념 제거
→ 강박관념 제거

나주영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한 전체 워크숍
-토론문자료 1

‘여성장애인과 가정폭력’ 주제발제에 대한 토론문

배복주(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

- 발제문에 대한 의견

1. 가족개념에 대한 부분

혈연가족, 혼인으로 구성된 가족(사실혼 포함), 동성 간의 동거, 룸메이트, 공동체, 후견인과 동거 등을 포함한 확대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가정폭력이 사적영역에서 일어나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적인 가정폭력, 가정폭력 유형

신체적인 폭력에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위협이나 협박의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정신적인 폭력에서는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 안에는 아내강간이 하나의 주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예방매뉴얼 제작 과정으로 본 여성장애인과 가족

가족 안에서 가족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의 태도보다는 사회 정책적, 제도적 요구가 가능한 가족태도를 지향하는 방식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4. 예방매뉴얼 제작 과정으로 본 여성장애인과 가정폭력

장애여성의 가정폭력 유형을 구분하는데, 장애영역별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폭력의 유형별로 예를 들면 혈연가족 중심의 폭력, 혼인관계에서 아내구타/강간, 동거인 폭력 등으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위험한 게 많아*

5.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대안)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가족개념과 구조의 변화,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긴급구조망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 예방법 발주 제언에 개인 구체적 언급*

가정폭력-긴급구조망 체계 강화할 때 목차 반영

- 사례소개 : 전생애에 걸친 장애여성의 폭력경험

1. 혈연가족 안에서의 폭력

혈연관계라는 운명이고, 가족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라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가정안에서도 일어난다. 예를 들면, 성폭력, 언어폭력, 분위기폭력, 교육기회 박탈, 물리적 폭력 등으로 구성된 폭력이 있다. 가정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드러낼 수 없다는 것과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일상적인 통제권과 모든 자원이 가족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제기 할 경우에 가족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장애여성에게는 더욱이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정기

2. 혼인관계(사실혼)에서의 폭력

혈연가족에서 독립하는 하나의 형태가 결혼이며, 결혼을 통해서 폭력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장애여성들이 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는 남편은 가족의 가장으로 위치하며, 아내에게 성역할(가사노동, 자녀양육, 성서비스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장애여성이 가족 안에서 이러한 성역할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나타는 것이다. 폭력의 유형에는 아내구타, 아내강간, 경제적 착취, 위협, 협박 등의 폭력적인 분위기 등이다.

남성. 내미트. H 개입반에

3. 동거가족에서의 폭력

에인, 룸메이트, 후견인, 공동체 가족구성원 등이 혈연이나 혼인관계 등에서 보여 지는 강력한 가족유지에 대한 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결정권으로 빼앗는다. 이 관계는 폭력은 무시, 언어폭력, 성폭력, 물리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장애여성공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토론과 고민을 하면서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정폭력 매뉴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족 개념에 대한 글

* 폭력의 유형을 장애영역별로?

* 장애-병거판에 대항장애인 주가. 어떤 내용?

대항판이 건강 주가의 개념은 아니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한 전체 워크숍
-토론문자료 2

조 임 숙(시각장애인여성회 부회장)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의 활성화

1.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성폭력 피해 여성과 통합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예방교육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사와 경찰 등 좀 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정*
3. 피해여성과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경제능력이 부족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직업 알선 및 자립생활교육 등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여성장애인 인권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연합을 비롯하여 각 지방 회원단체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숍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 이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대처방안

1. 가족이나 친척의 근접 지역으로 이사하여 더 큰 피해로부터 대처한다.
2. 가해자에게 모든 상황에 있어 무관심으로 대처한다.
3. 가재도구를 가해자가 파괴 할 때 경제적으로 더 큰 손해가 있을 만한 물건을 제공한다.
4. 가해자 폭력의 예방은 최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대면을 피하는 것이다.
(예)연락두절, 이혼,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
5. 피해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올바른 상황 파악과 판단은 지혜와 현명한 선택임으로 평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구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 이혼*

◆ 여성시각장애인의 가정폭력 사례

사례 1) 남편이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육체적 폭력을 가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정신적 학대로 부인은 오래전부터 변비로 고생을 해왔으며 너무 상태가 심각하여 여러 치료 방법을 써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사례 2) 동거 부부로 여자 집에서 아직 어리기에 집으로 돌아오란 권유를 계속하자 불안해진 남자가 잘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칼을 맞춰다 놓고 부인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가족의 도움으로 여자는 도망가게 된 경우.

사례 3)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한 여성시각장애인은 어렸을 때 독에서 라디오와 함께 자라났다. 그녀의 모든 생활을 독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가족의 철저한 무시와 차별 속에서 은폐되었고 의식주는 그 안에서 해결되었다. 아직도 그는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00복지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립생활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는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단추를 잠근 다던가 벨트를 한 다던가 전화도 걸지 못하는 상태이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한 전체 워크숍
-토론문자료 3

이문자(서울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가정폭

장애여성에게 대해 신중하다.

투명히 하기

1. 폭력 단절 시점

2. 폭력 재발해 없애기

- '가정' 이후부터 상담권 거 상담

타성으로 강행이 강행이 원근감은 (5년만 이버지면 개인 사생활까지)

가정폭력 - 가족관계 (가정) 개인 삶

나눔, 사랑, 공감해서. 인권. 장애인.

가정폭력 시정립 필요.

가정폭력 범람에 장애인에게 도움 거다 X.

방어 범위 증대 필요 → 운동이 필요.

가정폭력 DB 인사업 필요

1. 전문기관폭력 상담

2. 서비스 (가까운 데 위치)

상담원 - 자원봉사 (가정폭력) ~~가정~~ ~~서비스~~ ~~서비스~~

가정폭력 인계 긴급 출동

(24시간)

서비스 없이 있음
OIA, 상담이 안 되면 어떻게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의 필요성

방 영 회(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쉼터 원장)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쉼터는 통합쉼터 즉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에 시달린 여성장애인들 모두가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였다 쉼터 개소식 후에 시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통합쉼터는 범조항이 없으므로 사업목적을 고쳐서 성폭력쉼터나 가정폭력쉼터로만 신고할 수 있었다 여러 번 사업목적을 고치면서 성폭력쉼터로 시설허가를 받게 되었다.

통합쉼터가 성폭력쉼터로 신고 된 후에 가정폭력에 의한 쉼터 입소상담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폭력쉼터로 시설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단지 위급한 상황 3일만 입소가 가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입소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이의 동반을 원하지만 전문적인 가정폭력쉼터가 아니므로 아이와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입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쉼터에서 성폭력피해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가족력과 과거력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점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들은 성폭력 이전에 이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정리해보면 가정폭력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가 가출하고 어머니의 가출은 피해자가 혼자 남겨져서 가출하여 길거리를 헤메이다가 성폭력에 노출되어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즉 가정폭력은 성폭력과 연결고리가 있으며 가정폭력은 성폭력으로 쉽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성폭력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전문적 쉼터가 필요하지만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으며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갈 곳이 없다. 그리고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상담할 곳이 없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한 사건 사건마다 남편과 아이들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요구되어져 상담원들의 업무가 무거워 소진하기가 쉽다.

위에서 나타난 여러 사항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은 예방과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매뉴얼은 꼭 필요하고 위의 내용들이 함축되어져서 매뉴얼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당첨이
성폭력 쉼터

여강

가정 폭력
남성 장애인

남성 장애인 ← 강에서

가정 폭력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매뉴얼 제작을 위한 전체 워크숍

-종합토론

***여성장애인가정폭력 매뉴얼에 꼭 넣고 싶은 내용 한 가지씩 적어보기**

- 여성장애인 의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한다.
-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이 시, 군 단위로 생겼으면 한다.
- 장애도 우리 일상의 하나로 사회에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 의식변화와
당당히 맞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내용